

나,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그 동안의 부진을 씻고 연일 홈런포를 쏘아 올리고 있다. 15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5차전에서 KIA 나성범이 3회말 우중월 투런포를 장식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나성범, 투런포 등 4타점...전날 35타석만에 '마수걸이 홈런'
KIA, 두산 8-4로 잡고 '10연승 저지'...1.5게임차 1위 지켜



나성범이부진을 털고 이범호 감독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승리'를 안겨줬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5차전에서 8-4 승리를 거뒀다. '주장' 나성범이 결승 투런 포함 3안타를 만들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두 경기 연속 나성범의 홈런포가 터졌다. 나성범은 전날 2회말 두산 선발 브랜든의 4구째 129km 스위퍼를 공략해 중월 투런포를 장식했다.

시즌 35번째 타석에서 나온 '마수걸이' 홈런이었다. 앞선 4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나성범이 홈런으로 침묵을 깬 뒤 15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날 5번으로 내려갔던 나성범은 이날 3번 자리로 복귀해 1회말 1사 1루에서 첫 타석을 맞았다. 결과는 중견수 플라이였지만 0-1에서 맞은 3회 두 번째 타석은 달랐다. 1사 1루에서 두산 선발 최원준의 4구째 130km 슬라이더를 우중월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2-1로 승부를 뒤집었다.

4회에도 나성범이 타점을 올렸다. 1점 차로 앞선 4회 1사에서 홍중표가 좌측 선상을 빠져나가는 타구로 2루로 향했다. 박찬호의 내야 안타가 나오면서 1사 1-3루가 됐다. 박찬호가 도루로 2루까지 이동하면서 상대를 압박하자 두산이 김명신으로 투수를 교체했다. 서경찬의 타구가 투수 앞으로 향하면서 투 아웃이 됐지만 최원준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면서 베이스가 가득 차다.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나성범은 4구 승부 끝에 좌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2타점을 추가했다. 최형우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점수는 5-1이 됐다.

4점 차를 만들었지만 승리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5회초 1사에서 내일이 정수빈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허경민에게 좌중월 2루타를 맞으면서 5-2, 내일이 강승호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투아웃은 채웠지만 양의지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5-3이 됐다.

6회초 1사에서 내일이 정수빈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허경민에게 좌중월 2루타를 맞으면서 5-2, 내일이 강승호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투아웃은 채웠지만 양의지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5-3이 됐다.

4점 차를 만들었지만 승리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5회초 1사에서 내일이 정수빈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허경민에게 좌중월 2루타를 맞으면서 5-2, 내일이 강승호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투아웃은 채웠지만 양의지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5-3이 됐다.

4점 차를 만들었지만 승리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5회초 1사에서 내일이 정수빈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허경민에게 좌중월 2루타를 맞으면서 5-2, 내일이 강승호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투아웃은 채웠지만 양의지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5-3이 됐다.

4점 차를 만들었지만 승리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5회초 1사에서 내일이 정수빈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허경민에게 좌중월 2루타를 맞으면서 5-2, 내일이 강승호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투아웃은 채웠지만 양의지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5-3이 됐다.

4점 차를 만들었지만 승리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5회초 1사에서 내일이 정수빈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허경민에게 좌중월 2루타를 맞으면서 5-2, 내일이 강승호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투아웃은 채웠지만 양의지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5-3이 됐다.

다. 내일은 양석환을 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이날을 종료시켰다. 이날 제구 난조 속 투구수가 100개에 이르면서 내일의 등판은 5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내일의 성적은 5이닝 5피안타 3볼넷 5탈삼진 3실점.

6회부터 KIA 볼펜이 가동됐다. 내일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박도규가 첫 타자 김재환에게 2루타는 맞았지만 라모스, 김기연, 조수행을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박도규가 7회 1사까지 책임진 뒤 장형식이 등판했다. 굵은 빗속에서 전개된 승부, 연속 안타와 폭투가 나오면서 1사 2-3루가 됐고 양의지의 희생플라이로 5-4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볼넷까지 기록되면서 2사 만루, 최지민이 등판해 김재환을 1루수 피울 플라이로 잡고 두산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위기를 넘긴 뒤 KIA가 점수를 더하면서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왔다. 1사에서 김선빈의 우전 안타가 나왔다. 대타 김태군의 좋은 타구가 우익수에게 잡혔지만 홍중표가 볼넷을 끌리내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이어 박찬호의 타구가 좌익수 앞으로 향했다. 좌익수 조수행의 포구 실책까지 기록되면서 김선빈에 이어 홍중표가 홈에 들어왔다.

KIA는 8회 2사에서 나온 최형우의 시즌 8호포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마무리 정해영은 9회 등판해 허경민-강승호-양의지의 방망이를 연달아 헛뜰게 하면서 두산의 10연승을 저지하고, 팀의 연패를 끊었다.

나성범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됐다. 타구도 센터 방향으로 잘 나가는 것 같다. 센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방망이를 잡아 치거나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산이 9연승 중이었었는데 계속 승리를 만들 어주면 안 된다.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도영이도 부상으로 빠졌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낫은 날씨 속에 우리 선수들이 잘 이겨내줬다"며 "스승의 날 최고의 선물은 승리라고 생각한다. 선수단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승리다. 승리하는 데 도움이 돼서 기쁘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처님 오신 날이자 스승의 날이었던 이날 KIA 선수단은 이범호 감독과 코칭스태프를 위해 경기 전 상품권을 선물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대어' 울산 잡고 6위로 '점프'

K리그1 8라운드 2-1승
박태준 1골 1도움 활약



광주FC가 '대어' 울산 HD를 잡고 6위까지 올라섰다.

광주는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8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선보인 박태준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는 지난 4월 20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울산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순연되면서 뒤늦게 치러졌다.

앞선 대구 원정에서 2-3 역전패를 기록하고 돌아온 광주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골 사냥에 나섰다. 전반 13분 김한길의 아쉬움을 삼켰다.

엄지성의 슈팅이 울산 골키퍼 조현우 맞고 나오자, 김한길의 공을 잡아 슈팅을 시도했다. 수비 맞고 나온 공이 최경록 앞으로 향했고,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조현우에게 막혔다.

광주는 전반전 4개의 슈팅을 날리며 공세를 펼쳤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후반에도 광주는 공세를 이어갔다. 후반 2분 프리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왼쪽에서 공을 올렸지만 조현우에게 잡혔다.

후반 13분 마침내 광주의 공격이 결실을 맺었다. 왼쪽에서 엄지성이 정호연에게 공을 넘겼다. 정호연도 오른쪽에 있던 박태준에게 패스를 했다. 공을 잡은 박태준이 오른쪽 슈팅을 날리면서 굳게 닫혀있던 울산의 골대를 열었다. 올 시즌 광주에 새로 합류한 박태준의 시즌 첫 골이다.

후반 36분에는 이강현이 시즌 마수걸이 골을 넣고 환호했다. 잘 만들어진 골이었다. 정호연이 페널티박스 지역에서 공을 몰고 상대 수비진을 끌어낸 뒤 후방으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광주FC와 울산HD의 8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광주 박태준이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로 공을 보냈다. 정지용에 이어 박태준에게 공이 이어졌다. 박태준이 중앙에 있던 이강현에게 패스하면서 슈팅 찬스가 찾아왔다. 이강현은 시원한 오른발 슈트를 선보이면서 울산 골대 오른쪽 모서리를 뚫었다. 선제골을 장식한 박태준은 도움까지 기록했다.

광주는 후반 39분 울산 엄원상에게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후반 8분의 추가시간까지 잘 버티면서 2위 울산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더했다.

승점 15를 만든 광주는 이날 2골을 더해 올 시즌 21골을 기록하면서 17득점의 서울(승점 15)을 따돌리고 6위에 자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로 공을 보냈다. 정지용에 이어 박태준에게 공이 이어졌다. 박태준이 중앙에 있던 이강현에게 패스하면서 슈팅 찬스가 찾아왔다. 이강현은 시원한 오른발 슈트를 선보이면서 울산 골대 오른쪽 모서리를 뚫었다. 선제골을 장식한 박태준은 도움까지 기록했다.

이정후 어깨 부상 상태 심각 '류현진 수술 집도의' 만난다

샌프란시스코 구단 "구조적 손상 발견"...수술 가능성 배제못해

'바람의 손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부상 상태가 심각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15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이정후의 어깨에 구조적인 손상(structural damage)이 발견됐다"며 "이정후는 17일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닐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소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단은 이정후의 부상 정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구조적인 손상"을 언급한 만큼 인대 혹은 근육 손상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수술 가능성도 있다.

이정후는 지난 13일 신시내티 레즈전 1회 수비 도중 펜스를 충돌해 쓰러졌고, 팔뚝이 어깨 관절에서 빠지는 탈구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날 MRI를 촬영한 뒤 팀 주치의인 정형외과 전문의 케니스 아카스키 박사의 설명을 들었다.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를 10일짜리 부상자명단(IL)에 올렸고 밥 멜빈 감독은 "수술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후는 2차 검진에서 구조적인 손상이 발견됐고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나기로 했다.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소견을 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엘라트라체 박사는 세계적인 스포츠 분야 수술 전문 의사다. 국내 야구팬들엔 류현진(현 한화)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왼쪽). <연합뉴스>

의 어깨, 팔꿈치 수술을 집도한 이로 유명하다. MLB는 물론, 전 세계 스포츠 스타 다수가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수술을 맡긴다.

지난해엔 MLB 슈퍼스타 요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이정후의 수술 여부는 17일 혹은 18일에 결정될 수도 있다. 만약 이정후가 수술대에 오른다면 시즌 아웃 가능성도 생긴다.

이정후는 올 시즌 빅리그에 데뷔해 37경기에서 타율 0.262, 2홈런, 8타점, 2도루의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